

스타일 큐브 잔다리, '도회풍경 전'

홍대 앞 높아져가 끝나는 골목 즈음에 문화예술을 위한 또 하나의 높아져가 새로 들어섰다. 서교동의 옛 지명인 잔다리를 사용함으로써 홍대 앞 문화의 정체성을 받아들이고자 하는 '스타일 큐브 잔다리'. 이곳은 예술과 패션, 그리고 일상을 아우르는 스타일 공간으로서 다양한 놀이 의 즐거움을 기획하고 있다. 그 첫 번째로 지난 3월 26일 주영덕 사진전 '도회풍경 (townscape)' 전이 열렸다. 오는 4월 30일까지 계속 되는 이번 전시는 잔다리가 바라보는 홍대의 지역성을 표현하기 위한 것으로 형태 도시의 추억을 담고 있다. 앞으로 잔다리는 문화이슈탐을 위해 스타일레이드상점과 제스프렌드를 출시할 예정이고, 스타일퍼티와 갤러리카데미를 통해 공간마케팅을 해 나갈 계획이다.

02-323-4155 www.zandari.com



nature, art and architecture 전

세이디 MOA갤러리가 개관을 기념하여 오는 4월 10일부터 24일까지 'nature, art and architecture'라는 주제로 노르웨이 관화가 테르예 리스베르그(Terje Rieberg)와 건축가 무경국 씨를 초청하여 전시를 갖는다. 테르예 리스베르그는 풍경과 사막 등을 여행하여 촬영한 조형적 건축·풍경사진을 에코핀트 기법을 통해 인간 존재의 본질에 대한 성찰을 절제되고 미니멀하게 표현하는 매우 독특한 장르의 예술가이다. 무경국 씨는 한국성과 자연을 바탕으로 한 경계이론을 근간으로 건축하는 건축가이다. 이번 전시는 서로 다른 장르의 작가들이 하나의 주제를 놓고 진행하는 것으로, 세이디를 통해 자연에 대한 관심을 높일 예정이다.

세이디: 4.17. 15:00 MOA갤러리
031-949-3272



비니스비엔날레 건축전 한국관 주제 및 작가 선정

제9회 비니스비엔날레 건축전 한국관에 대한 주제와 작가가 선정되었다.

지난 3월 24일 한국문화진흥원은 기자회견을 갖고 오는 9월 4일부터 전시가 들어갈 한국관의 주제를 방의 도시(city of the bang)로 발표하고, 그 참여작가로 김광수(이화여대 건축학과), 송재호(송재호건축사사무소), 유석연(yna은고당건축사사무소) 씨를 선정했다. 올해 한국관 주제는 비니스비엔날레 전체 주제인 '변용(metamorphose)'과 맥락을 같이 한다.

전통건축의 사적공간 중 하나였던 '방'은 최근에 와서 는 다방, 비디오방, 피서방, 노래방, 전학방, 빨래방, 뽕질방 등처럼 다양한 상업공간으로 분화, 확산되고 있다. 이는 상업주의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한국 도시의 복합적 사회문화현상이다. 이번 전시는 3인의 젊은 건축가가 공동으로 방의 현상을 분석, 해석하여 현대건축가가 직면한 도시 건축의 문제와 그 가능성을 탐색하게 될 것이다. 최종 선정된 세 작가는 현실에 대한 공동의 인식을 기반으로, 도시와 정주공간, 그리고 온 라인 공간에 대한 개념적 시각들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다. 실제로 이번 주제와 근접하는 상당수의 작업을 진행해 왔다.

운영위원회는 보다 심도있게 주제를 탐색하고, 비니스비엔날레의 참여건축가들과 유대를 강화하기 위해 2인의 큐레이터(송재호와 유석연)를 두고자 한다. 그래서 큐레이터의 주제 하에 참여건축가들이 함께 주제에 대한 집중적인 워크숍을 갖고, 이를 토대로 전시관 계획을 조정 보완하여 7월까지 작품설치를 완료할 예정이다.

내일의 진실

조너단 반브룩의 그래픽 선동 전

디자인·회화 활동가인 조너단 반브룩이 오는 4월 16일부터 5월 4일까지 서울에서 첫 개인전을 갖는다. 예 술이전당 한가람미술관 제1전시실에서 진행되는 이번 전시는 초대형 그래픽과 실험적인 애니메이션 작품 50여점과 20여점의 미공개 작품이 선보인다.

전시제목 '내일의 진실'은 '오늘의 이단이 내일의 진실이 된다(today's heresy becomes tomorrow's truth)'라는 문구에서 따온 것으로, 과거에 이단시되었던 여성운동이나 인종차별폐지와 같은 주장이 오늘날의 진실로 받아들여지는 것을 표현한다. 전시에서는 세계화, 사회 가변사실의 사유화, 미국의 신자유주의, 브레트 스펀, 아시아의 노동운을 학위하는 강대국들의 현지공장, 북한 및 콜레스타인 문제 등 현실을 둘러싼 가장 절박하고도 근본적인 문제들을 보여준다. 조너단 반브룩은 이러한 심각한 문제들을 일인인물과 함께 소통하기 위해 광고에서 사용하는 언어의 선전기법을 적 러디하고 있다. 즉, 기업 광고의 캐치프레이즈와 모고 를 날카로운 아이러니로 가공하여, 한 세대가 당연하고 있는 주요 문제를 비꼬면서 보다 설득력있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 전시를 통해 9.11사태나 1, 2차 이라크전쟁과 같은 이 시대에 가장 의미심장한 사건들을 포함하여, 반브룩이 지난 10여 년 동안 정치 사회적 문제에 꾸준히 대응하면서 작업해온 비상업적 작품들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

세이디: 4.16. 13:30

02-580-1540 www.designgallery.or.kr

